교차 편집[1] 기법으로 본 동남아 원자력 추진
-'NES-SSN' 원자력 에너지 안전 하위그룹 네트워크의 등장을 중심으로

박 창 호
원자력국제협력재단(KONICOF) 국제협력실장

(장면 #1) 2008년 3월 동경

금년 3월 10일부터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국가조정관회의에서 동남아국 대표들은 자국 내 원전 도입에 관한 현황 보고를 빼놓지 않았다. 베트남은 오는 5월경 드디어 베트남 원자력법이 베트남 의회를 통과한다고, 필리핀은 1970년대 초 마르코스 대통령 재임시 건설이 중단된 바탄(Bataan) 원전에 최근에 IAEA 전문가들이 다녀갔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필리핀 대표의 보고에는 최근 아세안이 원자력 에너지 안전 하위 부문 네트워크(NES-SSN)를 구성해 지난 1월 싱가폴에서 제1차 회의를 했다는 다소 생소한 사실이 포함되었다. NES-SSN이란 대체 뭔가?

(장면 #2) 2007년 7월 마닐라

지난해 7월 아세안 외교 장관들은 핵비확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동남아 비핵지대조약(SEANWFZ)의 이행과 강화를 위한 5개년 행동 계획을 승인했다. SEANWFZ 조약에는 아세안 10국이 모두 서명했으나, 공교롭게 원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SEANWFZ 조약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약이다. 가맹국의 영토 · 대륙붕 · 경제 전관 수역 내 핵무기에 대한 보유 · 실험 ·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핵을 탑재한 미국 함선이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기항 · 통과를 허가할지 말지도 각국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동남아 각국이 핵보유 강대국의 이해 관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산물이다.

같은 해 7월 14일 말레이시아의 연합뉴스 관영 베르나마 통신은 나집 라작 부총리의 말을 인용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3천만불을 들여 파

1) 교차 기법이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평행 행위를 시간상 전후 관계로 병치시키는 편집 기법. 영화사적으로는 포터(Edwin S Porter)가 <미국 소방수의 하루>와 <대열차 강도>에서 최초이며 극적으로 사용한 이래 그리피스(D.W. Griffith)와 러시아의 몽타주 이론가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추적 장면 등에 많이 쓰이며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항주에 동남아 지역 원자력 기술 개발을 모니터하기 위한 건설할 예정이며 동 시설을 3년 내 완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장면 #3) 2008년 1월 싱가폴

금년 1월 22일부터 양일간 싱가폴에서 아세안 원자력 에너지 안전 하위 부문 네트워크(NES-SSN) 제1차 회의가 열렸다.

NES-SSN의 출범은 지난해 1월 제12차 아세안 서밋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서명한 아세안 에너지 안보를 위한 쎄부 선언에서 비롯된다.

이후 8월엔 아세안 에너지 장관들이 '아세안 원자력 안전 레짐'을 제안하고, 각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시 모여 원자력 에너지 안전 하위 부문 네트워크(NES-SSN) 구성(안)을 마련해 출범하였다.

여기에는 IAEA가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되었고, 일본의 원자력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우연하게 1월 22일 NES-SSN 회의가 열린 날 한국은 원자력안전학교를 개교했다.

(장면 #4) 다시 2008년 3월 워싱턴 D.C.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장들이 모이는 국제규제자협의회(INRA) 제22차 회의가 열려 개도국 규제 요원 양성 등 원자력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핵비확산조약(NPT), IAEA 안전협약 가입 등 포함한 개도국 지원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향후 지원 기준으로 삼겠다고 정했다. 이 지원 기준은 IAEA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송부될 예정이다.

겉으로는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이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원자력 도입을 서두르는 것만 두드려져 보이지만,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남아 지역 전체의 원자력 안전과 보안 대책, 핵비확산 대책 마련을 위해 외교관과 과학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장면을 함께 연결해 보기

위의 각각의 4장면들은 2006년도에 국내에 개봉되었던 브레드 피트 주연의 영화 <바벨>을 연상시킨다. 어느 날 모로코 사막에서 울려 퍼진 한 발의 총성이 모로코, 멕시코, 일본에서 각각 벌어지는 4개의 사건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영화 <바벨>의 교차 기법 시나리오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남아 상황 전개가 너무 비슷하다.

4개의 장면을 종합해보면, 겉으로는 동남아의 몇몇 나라들이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원자력 도입을 서두르는 것만 두드려져 보이지만, 사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남아 지역 전체의 원자력 안전과 보안 대책, 핵비확산 대책 마련을 위해 외교관과 과학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한수원㈜ 등 사업체들은 동남아 지역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카르타, 하노이 등지에 현지 사무소 숫자를 늘렸다.

원전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체들의 자체 마케팅 노력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할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원전 세일즈를 위해 사업자 혼자 뛰려 하기보다는 외교관이나 과학기술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며 함께 노력해야 성사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인다.